Newsletter 2014. 2 VOL.16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진정한 소통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행정실장
이 동 학

안녕하세요.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2014년 02월 01일부터 새롭게 행정실장을 맡게 된 이동학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연구원에 오기 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조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대학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입사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명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세 장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대학 학기 중에 'HE컨설팅' 에서 일을 했는데, 저의 첫 명함이 나온 직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아웃리치 연구소' 였고, 세 번째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였습니다. 각각 팀장, 회계, 조교라는 다른 직책이었지만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뒤이어 네 번째 명함은 다들 눈치 채셨다시피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의 행정실장입니다. 금일 이후 저는 전임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는 한국고전문화연구원에서 저만의 밑그림을 그려가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는 유독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열풍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재 권력에 맞서 일반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위기를 맞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날로그 시대에 소통의 역할을 한 '대자보' 와 디지털 시대의 'SNS' 가 서로 융합되어 보다 발전된 소통의 형태로 파생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대자보를 통해 아날로그적 소통을 하자, 이를 디지털화적 소통을 통해 SNS를 하는 사람들에게 파급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SNS에서 제외된 시골의 어르신들에게는 언론과 방송을 통해 파급되어 결과적으로 전 세대가 민주주의 위기를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소통의 수단이 소통의 방해가 되는 거 같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각자의 시선은 스마트폰의 액정을 향해 있고, 입으로만 상대방에게 이야기가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명 'eye contact' 를 하지 않고, 무미건조한 대화를 일삼는 것이 일상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온라인 속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연구원도 소통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을 아끼고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0여 년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는지, 옆과 뒤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소통이란 서로가 잘 통하는 것이지, 한쪽만 통하는 것은 일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회원분들께서 답답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두서없는 글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모두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나날만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햇수로 6년 동안 연구원에 헌신적으로 몸담으신 전임자 임미연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연구원 소식 |

2014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1.18)

2014년도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조광 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병문 이사장, 이강안 · 이영규 감사, 변주승 · 문명철 · 김경수 · 왕기석 · 홍성덕 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무국 예산 및 사업비 예산의 결산 승인과 2014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연구원의 발전 방안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4년 1차 운영원원회 개최 (1.15)

2014년도 첫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변주승, 이충규, 이미경, 최우영, 하태진, 한명수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2014년도 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 2014년도 사업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독도 홍보 (2014.1.1.~24)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2년) 김가희 학생이 월드프렌즈 PAS(태평양아시아협회) 청년봉사단에 참가,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약 3주간의 봉사활동과 더불어 작년 연구원에서 독도행사를 위해 제작했던 홍보책자, 책갈피 등을 활용, 독도를 홍보하였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리고, 연구원 행사에 참여했던 김가희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행사 발전방안 토론회 (1.23, 14:00~17:30)

태조어진 봉안행렬 및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전주는 조선왕조의 발상지이며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적 교훈의 산실로 2013년 태조어진 봉안행렬 및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재현행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행사에 대한 고증 및 행사 진행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주의 대표적 축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행사와 관련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원 정관 개정

연구원 업무 효율성의 저하 및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 운영 · 발전을 위하여 정관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법인 조직과 연구원 조직의 통합, 원장 및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임원 조직의 신설, 임원 중심의 법인 운영 방안 모색, 평의원 및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 조정, 평의원의 권리 제한 조항 신설, 주요 사업에 동해독도 관련 교육강좌 및 홍보사업 및 국악진흥 관련 사업을 보완 ·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후원계좌 : 우체국 400010-01-020629 / 국민은행 506501-04-303390 / 전북은행 505-13-0335557
예금주: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 CMS를 통한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연구원으로 연락주세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02(제세한의원 2층) 전화: 063-286-3005 / 팩스: 063-286-3007
이메일: hangoyeon@hanmail.net 홈페이지: www.clature.kr